

녹지국제병원 뒤처리 차기 도정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 다룰 소송 3월부터 진행
최종 패소 시 도민혈세 지출 불가피 예상
녹지 본사 강경... 소취하 등 가능성 낮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결국 차기 도정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8기에서 도민혈세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소송'은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마무리 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패소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다. 제주자치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 1심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된다. 1

심 선고와 2심(항소)과 대법원(상고) 판결까지 감안하면 민선 7기내 소송이 마무리 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은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입방적인 불허 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

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불만을 가졌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상 개원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2019년 3월 4일로 만료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같은 해 4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녹지 본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취하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박희수 전 의장,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

선거 출마 여부 등 관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박희수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대통합을 위한 복당 신청을 마감했다. 박 전 의장도 이날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복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복당 신청자에 대한 복당 허용 여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번 복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일괄 복당에서 민주당은 성비위,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자가 아니라면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전 의장은 2020년 3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박 전 의장은 그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인 송재호 의원을 전략 공천하자 이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다. 박 전 의장은 무소속 한계에 부딪치며 낙선한 이후 정치 행보를 자제해 왔으나 최근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조금씩 행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복당의 문을 활짝 연 만큼 박 전 의장의 복당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이번 복당 신청이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민주당 '청정위원회' 제주 청년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미래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진 청정위 상임위원장,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청용 도당 청년위원장 및 청년출마예정자, 청년 당원 등 20여명이 함께 논의했다. 행사는 청년 예비출마자 10명의 2분 스피치에 이어 출마의 변 발표, 청년으로서 정치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용진 청정위 상임위원장은 "그럴싸한 이벤트가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마이크를 주고 결정권을 주는 정당이어야 민주당이 승리하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서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핫플레이스 등극한 말등대 17일 제주시 이호대우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말등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해부터 이중섭 브랜드화 주력" 서귀포시, 미술관 개관 20년 사업 등 다각화

서귀포시가 올해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기획전시 및 이중섭거리 선포 25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연계, 이중섭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삼성가의 이중섭 화백 작품 12점 기증을 계기로 그동안 전시공간이 협소했던 미술관 신축을 추진, 2024년 완공을 계획하며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중섭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중섭미술관의 역사와 현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통해 역사와 관련해 미술관 건립 계기를 마련한 인물과 시기별로 작품을 조명하고, 수준 높은 원화 소장품을 장르별 시리즈 전시를

통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시는 이중섭거리 선포 25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관련 인문학 강좌인 '문화사랑방'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의 과거지역 사진과 일화 등의 조사를 통해 거리역사 자료조사에 나서고, 수집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한 아카이빙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오페라(10월) 공연과 이중섭세미나(9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이중섭미술관 신축에 주력한다. 백금탁기자

신구간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 최소화 2021년도 일 평균 1232건... 전년 비해 40% 늘어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 사이)에 대형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시가 온라인 배출신청 등 적기수거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1년도 신구간 동안 대형 폐기물 배출 건수는 일 평균 1232건으로, 2020년에 비해 354건(40%) 늘어났다. 올해도 이달 13일 현재 일 평균 946건으로, 신구간이 가까워질수록 대형 폐기물 배출 건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 생활환경 변화 외에도 대형 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신고 방법 다양화(제주시청 홈페이지, 모바일)로 편의성이 증진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실제 2021년 대형폐기물 처리 32만2000건 중 온라인 접수는 12만9000건(40%)으로, 2020년도 9만

9000건(33%)에 비해 2만9000건 증가했다. 대형 폐기물 배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제주시 대형 폐기물 홈페이지에 접속해 PC나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폐가구류, 폐가전류 등 대형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없어 다양한 크기와 종류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가전제품인 경우 대형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1599-0903)를 통해 무료로 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일 경우는 단일제품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이면 방문수거를 하고 있다. 다만, 소형 가전이 5개 미만인 경우 가까운 재활용도움센터로 직접 가져가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 · 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원을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The founder of granular water soluble fertilizer

Powerful

용량 : 20kg

NAVER D2M

코코리

검색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